

5. 2023. 4. 25. 화 오전 11:20 까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. 새악시 불에 떠 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얹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.	6. 2023. 4. 25. 화 오전 11:20 까지 내 마음의 고향 이시영 내 생애 그런 길이 남아 있을까? 중학 1학년, 새벽밥 일찍 먹고 한 손엔 책가방. 한 손엔 영어 단어장 들고 가름쟁이 콩밭 사잇길로 사잇길로 시오 리 를 가로질러 읍내 중학교 운동장에 도착하면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해에 함뽕 젖은 아랫도리가 모락모락 흰 김을 뽐 으며 반짝이던 간혹 거기까지 잘못 따라온 콩밭 이슬 머 금은 작은 청개구리가 영롱한 눈동자를 이리저 리 굴리며 팔짝 튀어 달아나던 내 생애 그런 기쁜 길을 다시 한 번 걸을 수 있을까
7. 2023. 4. 25. 화 오전 11:20 까지 향수 김상용 인적 끊긴 산속 돌을 베고 하늘을 보오 구름이 가고 있지도 않은 고향이 그림소	8. 2023. 4. 25. 화 오전 11:20 까지 아버지 이 탄 아버지는 넓고 잔잔한 바다 같은 눈으로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신다. 돋보기 안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아버지의 주름살이 자꾸만 자꾸만 파도가 되어 밀려온다.